

“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겠다”

朴대통령 美 의회 연설…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제안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주도해 북한에도 문호를 개방, 환경 등 비정 치적 사안에서부터 시작해 북핵 등 안보현안으로 대화의 단계를 높여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일명 서울 프로세스)을 공식 제안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6번째로 행한 이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협력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하다가 적당히 타협해 보상해 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돼 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며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됨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경기지역 공약에서 경기 북부지역 개발과 함께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래 아시아의 새 질서는 역사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

보협력은 뒤쳐진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극복을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는데 한미 양국이 함께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하다가 적당히 타협해 보상해 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돼 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2박3일간의 위성연설 일정을 마무리하고 첫 방미의 마지막 기착지인 로스엔젤레스(LA)에 도착했다. LA에서는 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하며, 9일에는 창조경제 한인간담회와 LA시장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4박6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도중 박수를 받고 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겸 상원의장, 오른쪽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브렛 애티 ‘코어팩트 유에스에이’ 대표(사진 왼쪽)와 LED 교체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강시장 美서 1억2000만달러 LED 수출 협약

강운태 광주시장은 단장으로 한 광주시 통상진흥단이 미국에서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MIG(Made in Gwangju) LED(발광다이오드) 제품 판매 계약 및 수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미국에 LED제품을 첫 수출(광주일보 1월 24일자 1면) 이후 거둔 성과로, 본격적인 미국 진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시 통상진흥단 소속 쭈깁진엘앤디(대표 이경재)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엔바이로브라이트사에 2000만달러 규모의 LED 조명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쭈깁진엘앤디는 광주시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MIG(Made in Gwangju) 브랜드로 지난해 12월 LED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업체다.

특히 쭈깁진엘앤디는 수출협약 당시에는 전력소비량이 200W급인 LED 투광기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계약보다 우수한 120W급 LED 투광기를 개발해 전력 소비량은 물론 세작 단가도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LED투광기 수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지역기업과 기술제휴를 성사시키는 등 지난 2년여 동안 MIG LED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앞서 강 시장과 시 통상진흥단 소속 월드비전라이트는 지난 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300만달러 규모의 LED 투광기와 조명제품을 디엘에스 글로벌에 판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시 통상진흥단 소속 쭈깁진엘앤디(대표 이경재)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엔바이로브라이트사에 2000만달러 규모의 LED 조명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쭈깁진엘앤디는 광주시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MIG(Made in Gwangju) 브랜드로 지난해 12월 LED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업체다.

특히 쭈깁진엘앤디는 수출협약 당시에는 전력소비량이 200W급인 LED 투광기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계약보다 우수한 120W급 LED 투광기를 개발해 전력 소비량은 물론 세작 단가도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朴대통령 美의회 영어연설 40차례 박수 받아

6차례 기립박수… 4분 초과

박근혜 대통령의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은 참석 의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약 34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또박또박한 영어발음으로 시종 차분하게 연설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연설을 전후해 기립박수 6차례를 비롯해 모두 40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연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39차례의 박수가 나왔다. 이 때문에 애초 30분 예정이던 합동연설은 4분간 가량 늘어났다.

연설 시작 전 상·하원 영접단 35명이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기립박수 속에 본회의장에 입장한 박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소개하게 된 특권을 갖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차분한 표정으로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이를 전한 한국전쟁 기념관을 찾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는 비문을 인용하며 “이 비문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준다”고 언급한 데서 첫 번째 박수를 더져나왔다.

또 박 대통령이 연설회장에 참석한 존 코니어스 의원 등 네 명의 참전용사를 차례로 언급할 때마다 박수 갈채가 나왔고 마지막 하워드 코발 의원의 이름을 부를 때는 회의장에 참석한 전 상·하원 의원들이 일어나 첫 기립박수를 보냈다.

국회 휴지기… 의원 해외출장 러시

인사청문회·추경처리 등으로 미뤄져

4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5월 국회 휴지기지만 국회의원들이 속속 해외로 나갈 예정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 추경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국회가 연이어 열리는 바람에 미뤄져 온 해외출장이 5월에 한꺼번에 물린 때문이다.

9일 국회 사무처와 각 상임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최규성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 민주당 김영록 간사가 24일 7·9일 일정으로 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를 찾는다. 이를 국가가 농업과 축산업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현장시찰 위주로 동선을 짤 방침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달 말 안홍준 위원장, 새누리당 정문현 간사, 민주당 심재권 간사 등 3개 팀으로 나눠 충남미·북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을 단장으로 여야 2명씩 모두 5명이 이달 말 4·6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낭트,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한다.

정무위원회는 여야 의원 4명 가량이 오는 26일부터 일주일 가량 국가 보훈처 주관의 ‘국외사적지 탐방’을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박영선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권선동 간사, 민주당 이춘석 간사 등 여야 3인 총 모두 6명이 오는 20일께 남북통일에 대해 통일 후 한법체계 연구 차원에서 동유럽 지역으로 출장을 떠난다.

이처럼 상임별위 소관 업무에 맞는 ‘해외출장’이지만 관행화된 ‘외유성 나들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유권자의 날 행사 다채

영화제·선거사진 특별전

해 ‘선거, 그 50년을 기록하다’는 주제로 대한민국 선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선거사진 전시와 함께 방문객이 직접 투표 체험을 할 수 있는 선거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영화는 광주극장에서 매일 오후 3시에 ‘데미제리블’과 ‘26년’ 등 다섯 작품이 총 7회 상영되고 광주영상부 축문화관에서는 ‘데 레이디’ ‘이장과 군수’ 등 다섯 작품이 6회 상영된다.

영화 관람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홍보과 062-363-5385)로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좌석을 배정받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kwangju.co.kr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 분 상담 환영합니다.

중앙공인중개사

♣. 병원건물 임대

☆.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금호·주공3단지·미라보·남양현대·우미·일신아파트 등 약 5,500세대) 병·의원 개원 하실분 모십니다. (아비인후과 소아·안과)

♣. 대지·전·답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 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 전원주택지

☆. 담군군 대전면 평장리 현재를 입구 저상 1층 1,620㎡(493평) 매매가 당 200만원 조정 가능(자동차·민박시설·전시장·점·고등·투자적합)

투자 및 다용도용 토지

고흥군 동강면 통강동 부근 벌교·고흥 4차선 교차로 코너 관리지역 암자 6,600㎡ 매매가 1억 5천 10평, 접근성 편리, 경시도 없음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리아브리즈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

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제어 출입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공장·창고·전시장 등

매월통 서광주역 인근 2차선화도로 접 지연동

지 전 1,620㎡(493평) 매매가 당 200만원 조정

가지동차·민박시설·전시장·점·고등·투자적합

투자 및 다용도용 토지

고흥군 동강면 통강동 부근 벌교·고흥 4차선

교차로 코너 관리지역 암자 6,600㎡ 매매가 1억

5천 10평, 접근성 편리, 경시도 없음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0-4610-3763

062)222-510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